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0년 3월 후원미사는 16일, 4월 후원미사는 20일, 5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20년 1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7,615,956	전월이월금	2,330,726
지 로	2,802,670	우리은행	11,889,810
국민은행	4,715,080	하나은행	1,431,120
조흥은행	95,000	신한은행	1,375,110
외환은행	922,610	제일은행	125,010
농 협	1,202,240	기업은행	430,060
우 체 국	60,000	CMS	236,52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5,2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5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0,425,000		
지원금	노동사목회관	2,40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베다니아의집	10,000,000	누수공사비 지원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4,790,956	운영비 등	
지출 총액		27,615,956	잔액(이월금)	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20. 02 / 제44호

펴낸날 2020. 02. 17.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이주민과 난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얼마 전 '4개 종단(원불교, 불교, 개신교, 가톨릭) 이주 인권협의회'가 주최하는 이주민 관련 이야기마당에 다녀왔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연이 기억에,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한 이주민 여성이 자신의 자녀 이야기를 하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였고 심지어 어느 한 친구에게서는 견디기 힘든 언어적 폭력으로 학교에 다니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괴롭히는 친구를 자신의 아이에게 법으로 접근을 금지시키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주민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잘 지내야 이주민의 아이들도 더불어서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주민 자녀들이 차별과 폭력과 박해로 인해 비틀어 나간다면, 결국 한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악영향이 고스란히 한국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입니다."

얼마 전 새롭게 바라본 성경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병환자 열 사람을 치유해 주시며, 가서 사제에게 몸을 보여주며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외국인이었다고 전합니다(루카 17, 11-19 참조).

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그 당시에 나병을 포함한 질병들의 원인은 죄로 인하여 하느님께 받는 벌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병자들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미움받고, 차별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걸린 환자이며 거기에 더하여 이방인이며 외국인이니 그는 얼마나 더 많이 차별받고, 더 많이 멸시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를 더 필요로 했고, 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환대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은 외국인은 더 많이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 외국인, 난민들은 우리의 환대가 더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의 나눔과 선행과 도움에 더 절실히 그리고 더 많이 고마움을 느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대와 나눔과 친절은 범죄증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 실천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또한 원주민의 환대와 배려와 존중으로 먼저 이주민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줄 때, 이주민들도 우리의 아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시작하며 10년 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은 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고, 옆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 보이는 것도 사랑이다. 마음에서 미움을 털어 버리고 화해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런데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중)

사랑의 실천은 커다란 것에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 점점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 특히 주변의 편견과 혐오와 오해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작은 사랑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아멘!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이사 58, 7-8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이 광 휘 베드로 신부

공동체 소식

베다니아의 집 소식*



베다니아의 집은 최근에 노후된 곳들을 점검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방수가 노후되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누수가 심하여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비도 커졌습니다. 30일 이상의 수리 기간에 갈 곳 없는 입소자들은 노동사목회관 강당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베다니아의 집은 몸이 아픈 이주민과 난민들이 이용하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쉼터이기에 공사를 미룰 수 없고 완벽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후원회원분들의 도움과 담당 수녀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공사를 잘 마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들이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공동체 피정 소식*



몽골 공동체는 1월 18~19일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1박 2일 피정을 하였습니다. 김성현 신부님(대전교구, 몽골 사목)의 지도로 14명의 신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몽골어가 가능하신 신부님의 피정지도로 평소에 말하기 힘들었던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하고 풀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 편안하고 좋은 피정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김성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가톨릭상호문화센터 소식*

서울가톨릭상호문화센터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적응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생활을 하는 이주민들에게 현지 언어를 아는 것은 의사소통의 원활함 이외에도 문화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주민들이 교육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워 원만한 한국생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업 일정 미정

①조기적응지원 결혼이민자과정(매월 1회, 3시간, 일정은 매월 변동)

②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

2단계, 3단계(월수, 화목 2개 반), 4단계(월수, 화목 2개 반), 5단계, 5단계(심화) 7개의 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고네지역아동센터 소식*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눈썰매장에 갈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외부활동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취소된 일정을 대신하여 몇 달 전 마고네 지역아동센터에 기증(주)솔트룩스)된 600권의 책 중에 '내일은 발명왕'이라는 책에 있는 실험 키트를 이용하여 만들고 실험하는 활동으로 취소된 일정 대신에 해보았습니다. 예상보다 더 재미있고 집중하여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책들 덕분에 학생들이 다양한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노동자 상담실 상담사례*

(베트남, 여, 22세)

환자는 2017년 3월 입국하여 원광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말 뇌종양이 발병되어 서울 의료원에서 종양제거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서울 성모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각 병원의 사회사업팀을 통하여 1억 3,000만 원의 검사비와 수술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말 좌측 다리에 심한 근육염으로 인해 신경 손상이 있고 방치할 경우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아 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시 국제수가 병원비는 23,386,698원 이었고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베트남공동체의 모금액 630만 원과 각 교구의 베트남공동체(인천교구, 전주교구, 부산교구, 김포 이웃살이)에서 310만 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자국민을 돕기 위해 베트남인들의 사랑과 타 교구의 정성 어린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진료의 진료와 검사비가 걱정입니다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외국인 무료 진료소*

단체명	진료과목	진료일시	진료장소
열린의사회	치과, 외과,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물리치료, 피부과	진료 전 단체와 연락하여 진료 일정 확인 필요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4호선 미아4거리역 2번 출구 6호선 월곡역 3번 출구
장충단 의료봉사단 오아시스클리닉	내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치과(어린이치과/상담) 한방, 카이로프랙틱, 법률지원/변호사상담	매월 제3주 일요일 오후 1:00~5:00	장충단 의료봉사센터 서울시 중구 동호길 30길 17
서울시의사회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매주일요일 방문 전 연락하여 진료 일정 확인 필요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길 18길 5 지하철 2호선 당산역 6번 출구 9호선 당산역 7번 출구
라파엘클리닉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치과, 일반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오전 9:00~12:30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 43길 7 한성대 입구 5번 출구
	내과, 당뇨클리닉,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오후 2:00~6:00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어린이집 미사



설날 세배

공지사항

이주민에 대한 본당 인식 개선 및 후원회원 모집이 2월 8일(토)~9일(일)에 양천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양천 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